

##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갈등

김수진 김수현

충북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본 연구는 우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밝히기 위해 두가지 주요 사례공식화 방법(CCRT, ICF)을 사용했다. BDI를 통해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을 각각 10명씩 선정하여 Luborsky등이 고안한 RAP인터뷰(The Relationship Anecdotes Paradigm interview)에 기초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내담자의 대인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CCRT 방법과 내적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ICF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요소들(CCRT - W, RO, RS ICF -Wish, Fear)은 표준화된 범주에 따라 평정하여 빈도로 정리되었고 선형로그분석(log-linear analysis)을 하였다. 연구결과 우울한 대학생 집단은 CCRT의 W, RO, RS에서 우울하지 않은 대학생 집단과 차이가 나는 공통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랑과 이해를 받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로 볼 수 있지만, 이차적으로 우울집단은 타인과 가까이 하고 수용받고 싶어하며, 비우울 집단은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거부하고 반대하는 부정적인 것이었고, 이에따른 자신의 반응은 우울해지고 실망하며 무력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타인의 반응과 스스로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었다. 또한 ICF 분석 방법을 통하여 우울한 사람들의 소망과 공포 내용을 사회심리 발달 단계에 따라 좀 더 세롭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우울집단은 사회심리 발달 단계의 상반부에서 '칭찬받고 특별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후반부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소망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다. 공포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은 '실망할까봐 두렵고, 남을 믿는것과 남한테 의존하는 것이 두렵다'의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우울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소망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거부되는 것을 과염려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한다. 한편 비우울 집단의 경우, 완전하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이 되고 싶다는 내적 소망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CCRT의 W와 ICF의 W간에 유사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두 방법의 W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공식화 방법의 W가 유사한 내용을 측정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중심되는 대인관계 패턴이 있다. 이러한 패턴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내담자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이 곧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행동패턴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전이 형태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Davanloo, 1980; Freud, 1905, 1912).

또한 내담자의 호소내용과 대인관계 양상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소망과 공포가 내재해있으며, 이것은 알게 모르게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내담자의 반복되는 행동패턴과 그 이면의 소망과 공포등을 밝히는 일은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를 유발하고자 하는 상담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사례공식화라고 하며, 올바른 사례공식화는 적절한 상담전략을 수립하고 적합한 기법을 선택하여 궁극적인 상담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나 중심되는 소망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울한 내담자들은 친밀하게 되고 수용되며,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우울증상은 상대방에게 진실되지 않은 지지와 재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갖게하고, 동시에 우울한 사람들을 거절하고 회피하게 한다고 한다. 이에따라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되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확신감이 부족하여 더욱 우울해지는 관계패턴을 가지고 있다.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이

나 무의식적 소망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있다. 예를들면,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고(Coyne,1976a),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절을 이끌어 내고(Sacco, Dunn, 1985), 미래의 사회적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과 만나고 싶지않다는 바램을 갖도록 한다고 한다(Coyne, 1976a; Hammer & Peters, 1977, 1978).

Beck(1983)은 사회적경향(sociotropy)이 높은 사람이 우울해지면 주로 상실감을 느끼며, 사회적 만족을 느끼려고 시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서 사회적 환경에 더욱 반응적이 된다고 했다. 반면 자율적경향(autonomy)의 사람이 우울해지면 주로 패배감을 느끼고 환경으로부터 철회하며, 사람들을 회피한다고 보고했다. Beck(1978)은 또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 현상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왜곡을 통해 거부나 상실 또는 실패등 독특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Pennsylvania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왜곡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우울한 학생들은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지할데가 없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는 그들 자신이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Luborsky(1990)는 우울증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수용 받으며, 사랑과 이해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은 거부적이거나 대적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내담자는 실망하고 무기력해지며 우울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Blatt, Quinlan(1976)은 우울 현상에 대한 연구중 정상적 우울 상태에 대한 것이 적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그 결과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얻으려는 욕구와 자신의 무력함을 비난하는점 등이 우울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로는 우울한 대학생과 우울증 환자들간의 역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 정도와 각 집단에서 독특한 역기능적 태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나승규,1993). 그 결과 역기능적 태도의 정도는 우울증 환자, 많이 우울한 대학생, 경미하게 우울한 대학생 순으로 높았고,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많이 우울한 대학생 집단에서는 의존성, 경미하게 우울한 대학생 집단에서는 강한 성취의식이 역기능적 태도의 구성요인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우울한 정도가 클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성,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의식, 타인에 대한 과염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우울에 대한 연구를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 분석 이론에서는 우울

증은 무의식적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며, 그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자기방향적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Freud,1957). 반면 반응-강화 관계의 붕괴로부터 우울증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강화 이론은 우울증이 긍정적 강화를 주는 우연적 반응의 상실 또는 결핍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Lewinsohn, 1974; Lewinson, Biglan & Zeiss, 1976). 또한 인지 이론에서는, 인지적 왜곡을 통해 도식적 해석과 추론인 자동적 사고가 형성되는데, 우울증에 대한 자동적 사고의 주제는 상실에 대한 지각이라고 하였다(Beck, 1972). 여러 접근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우울증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울증이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연구들에 기초해볼 때 우울은 정신과 영역의 심한 환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나 대학 장면에서도 많은사람들이 경험하고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우울증의 평생유병율(prevalence)은 대체로 남자 10%, 여자 20%로 성인에서 가장 일반화된 정신과 장애이다. 우울은 대체로 자발적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우울증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달리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적인 소망과 공포, 대인관계 패턴이 있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면 대학생들의 부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같은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을 밝히기 위해 사례공식화 방법을 몇가지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중심되는 대인관계 패턴을 찾고, 소망과 방어, 공포등을 밝히는 데는 CCRT와 ICF 방법이 적절하다. 중심 갈등관계 주제(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 CCRT)는 심리치료 회기의 면접 내용이나 또는 심리치료 회기에서의 내용과 유사한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RAP인터뷰(The Relationship Anecdotes Paradigm Interview)를 통해 이야기된 내용에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관계패턴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내담자 문제를 종합하고 치료방향을 설정하며 치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법이다. 한편 개별적 갈등 공식화(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 : ICF)방법은 개개인의 독특한 갈등과 소망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이를 위해 평가자는 주관적으로 또는 Erikson이 기술한 8가지 사회심리발달 단계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공식화 방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들에 따르면 사례공식화가 내담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지어 Eckert, Luborsky, Barber와 Crits-Christoph(1990)의 연구를 보면, 이들은 CCRT를 통하여 DSM체계에 따라 주요우울증으로 진단된 사람들의 주요한 장애의 특징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증상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단순히 기술하는 것 이상의 보충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우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적인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 갈등이 있

는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주요 공식화 방법인 두가지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방법(CCRT, ICF)을 통해 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에 있어서 CCRT와 ICF요소들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 또 어떤 요인이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우울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정신 분석 이론

정신 분석적 이론에 기초를 둔 연구들(Freud,1957; Blatt, Wein, Chevron, & Quinlan, 1979)은 무기력한 불안과 연관되는 우울상태의 병리적 정동은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이나 개인적 애착관계(대인 관계)를 강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난다고 제시한다. 현실지각의 결과로서 건강한 애도과정을 통하여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울증을 보이는 환자들은 그들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들에게 유지되어야 하고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포부와 희망의 3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치있게 되고 그래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열등하거나 멸시받지 않고자 하는 소망과, 강하고 우월하고 안정된 상태로 되고 약하고 불안정하게 되지 않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고 공격적이거나 미워하거나 파괴적인 대상이 되지 않고자 하는 소망이다(이근후 & 박영숙, 1985).

주요 우울증을 가진 환자의 무기력한 불안은 불안장애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종류라고

인식되고 있다. 지지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요구는 의존적인 유아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울증적 행동과 그와 연관된 정동은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유아상태의 행동으로 퇴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우울증이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 이든 환상이든 간에 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불안의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울 행동과 연관된 정동은 부분적인 이별의 고통이나 정동 박탈의 경험때문에 초기 생활의 정동상태에서 요구되는 방어가 발달되지 못한 사람과, 부정, 투사, 또는 강박적 반동 형성과 같은 지속적인 유아적 방어로 인하여 상실에 대한 성숙한 반응능력이 억제되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상실은 저절로 지각되며, 이것은 분노를 일으킨다. 분노의 감정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억압되고 자아의 내부로 향하게 된다. 비록 이들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이 억압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개인에게 죄책감, 무가치감 및 우울감을 일으킨다 (Freud, 1957).

더욱 최근의 이론들은 우울증이나 우울경향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초점을 둔다. Arieti와 Bemporad (1980; Bemporad 1971)은 의존적 우울과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우울의 경향을 구분하였다. 의존적 우울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내면화하는데 실패하여 자기존중감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지배적인 목표를 가진 성격의 사람은 스스로가 세우놓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때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와 유사하게 Blatt(Blatt, Wein,

Chevron, & Quinlan, 1979)은 우울증에 대해 초기의 상실로부터 시작되는 의존적(analitic) 유형과, 후에 외적인 부정적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의 기초가 되는 자책성(introjective)유형을 구분하였다. 의존적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은 무기력감, 약함,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살핌과 사랑, 보호받길 원하는 소망이다. 자책성 유형의 집단은 강한 열등감과 죄책감, 무가치함,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 사는데 실패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만 한다는 느낌으로 특징된다 (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 & Zuroff, 1982).

이와 같이 우울증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의 입장은 우울증이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토대로 그것이 표현되는 양상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

## 2) 강화 이론

우울증에 있어서 행동적 접근들의 공통적 가정은 반응-강화의 관계가 붕괴됨으로써 우울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Charles Ferster(1973)는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비율의 감소가 일반화 되어 개인에게 우울증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Peter M. Lewinsohn의 행동 이론에서는 긍정적 강화를 주는 우연적 반응이 상실되었거나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이라고 지적하였다 (Lewinsohn, 1974; Lewinsohn, Biglan, & Zeiss, 1976). 주요 생활 영역에서 강화가 불충분하게 주어지면 우울증의 주요 현상인 행동의 감소, 저하된 기분(dysphoria), 낮은 자아존중

감 그리고 무기력감과 같은 전반적인 기능수준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불충분한 강화는 세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첫째는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환경이 강화의 상실을 야기하거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화가 환경에 의해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개인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개인에게 환경에서 강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 셋째, 유효한 강화물이 주어지더라도 개인이 그로부터 만족을 얻거나 즐길 수 없는 경우이다. Lewinsohn의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주요 영역의 연구는 기분과 일상적인 사건 사이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긍정적, 부정적 사건들의 가정은 보상과 처벌로써 생각되어질 수 있고, 이는 기분에서의 강화의 효과를 가진다. 일상적인 기분은 유쾌한 사건과 긍정적으로 상관되고, 불쾌한 사건과는 부정적으로 상관되는 반면, 두가지 유형의 사건은 서로 배타적이다 (Grosscup & Lewinsohn 1980; Lewinsohn & Graf, 1973; Lewinsohn & Libet, 1972; Rehm, 1978).

긍정적 강화가 상실됨에 따라 우울이 생긴다는 행동이론의 또다른 특징은, 일단 우울이 발생되면 우울적인 행동들은 그것과 관계가 있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능한다는 것이다. 즉 불충분한 강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우울화된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강화를 얻는다.

### 3) 인지 이론

Aaron T. Beck은 주로 우울증에 중점을 두

고 이에 정신병리와 심리치료의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된 인지이론을 발달시켰다. Beck의 이론에서는 인지적인 용어로 우울증을 정의한다. 그는 세가지 인지적 요소를 우울증 장애의 본질로 보았다. 즉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들고있다. 이와같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세계, 미래에 대한 경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킨 우울적 도식의 세트를 통해 세계를 본다. 우울한 사람들이 갖는 왜곡의 하나인 임의적 추론은 자기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이라는 독단적인 가정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긍정적인 것을 과대하게 축소시킨다.

많은 전형적인 형태의 인지적 왜곡은 도식과 관련지어 이론의 발달 초기에 정의 되었다 (Beck, 1963). 도식은 저장된 정보의 복잡한 단위이고,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조판(template)으로 주어진다. 인지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조는 도식적인 해석이 항상 하나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형성하는 도식적인 추론과 해석들은 자동적인 사고라고 불린다. 자동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석의 과정을 지각하거나 사고 그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고의 정서적인 결과라는 의미이다. 우울증에서 자동적 사고의 주제는 상실에 대한 지각이며, 상실은 우울증에 관련된 인지이다(Beck 1972). 대조적으로, 획득에 대한 지각은 행복감(Euphoria)을 만들고, 위협에 대한 지각은 불안울 일으키며, 공격에 대한 지각은 분노를 야

기한다.

우울증 환자의 부정적인 도식은 주요한 상실이 지각되었을 때 활성화되며,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도식은 주된 상실이 경험될 때 재활성화된다. 도식들은 조직화되고,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해 정교화된 시각을 나타낸다. 도식은 일반적인 삶의환경 아래서 더욱 현실적으로 대치되지만, 상실의 환경에서는 재활성화의 잠재성을 가진 “잠복적(latent)”도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도식들은 환경이 개선되거나 시간의 경과 같은 어떤 개입의 형태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잠복적이 된다.

## 2. 사례 공식화 방법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이나 갈등을 평가하기위한 사례 공식화 방법에는 중심갈등관계 주제(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eme: CCRT)방법, 계획 공식화(Plan Formulation: PF)방법, 개별적 갈등 공식화(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 : ICF)방법, 합의된 반응 방법(Consensual Response Method: CRM), 역할관계 모델 공식화(The Role-Relationship Models: RRM Formulation)등이 있다.이중 본 연구에서 비교될 CCRT와 ICF방법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중심적 갈등관계 주제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eme : CCRT)

Luborsky Crits-christoph(1976, 1977, 1990)등이 임상작업에 기초해 처음 개발한 방

법으로 대인간 관계패턴을 추출해내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CCRT에서는 개인의 역동이나 전이의 특성으로서 관계패턴에 초점을 맞추며, 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중심되는 관계패턴(recurrent central relationship pattern)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일반적 관계 패턴을 추론하여 내담자 문제를 종합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며,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 2) 개별적 갈등 공식화

(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 : ICF)

Perry, Augusto와 Cooper(1986)는 개인의 독특한 갈등에 대해 평정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개별적 갈등 공식화(ICF)방법을 고안하였다. 이후에 개별적 기술을 보충하기 위해 14개의 특정한 갈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평가를 하는 정신역동적평정척도(Psychodynamic Conflict Rating Scales :PCRS)를 발전시켰다.

이 방법은 먼저 ICF를 내고 뒤에 정신역동적갈등평정척도(PCRS), 또는 표준화된 소망과 공포 목록을 사용해 ICF의 특정한 갈등을 평가한다. 갈등의 기술은 Erikson이 기술한 8가지 사회심리발달단계로 구성되어있다.

### 3) 사례공식화 방법들 간의 비교

각각의 사례공식화 방법은 구성요소 면에서 저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다. 그러므로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공식화 되었다해도 공식화 방법이 다르다면 서로 자료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됨으로 즉, 다른 정보를 사용하므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몇가지

방법의 유사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유사한 틀에서 나온 내용을 비교할 때 가능할 것이다.(김수현,1994).

몇가지 공식화 방법들을 통해 환자들의 대인관계 패턴중 타인에 대한 소망, 중심되는 내적 소망,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간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Perry, Luborsky, Silbrschatz와 Popp(1989)등은 CCRT, ICF, PF 방법을 같은 녹화인터뷰 자료에 적용시켜, 각 소망요소(CCRT-W, ICF-W, PF-Goal)에 대한 유사성을 검증하였다. 독립된 평정자들은 각각의 다른 공식화 방법을 사용하여 동시에 두가지 소망들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을 평정하였다. 연구 결과 CCRT W와 PD Goal은 의미있게 유사했고, ICF W 일부와 CCRT W 일부도 유사했다. 그리고 CCRT W 항목에 따라 PD Goal의 어떤 항목과 유사했고 ICF 일부 항목도 일부 PD 항목과 유사함으로써 세 체계에서 뽑은 W들이 다소간 유사성을 보임이 입증되었다.

우울증이 초기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때 CCRT에서 내담자가 타인에게 가지는 소망(Wish)중 '가까이하고 수용한다, 사랑받고 이해받는다'의 내용은 우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바램인 것으로 추론 된다. 또한 ICF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미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싶다, 남이 나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상실을 경험한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 소망(wish)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이 두 공식화방법에는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해진 사람들이 공통적

으로 가질수 있는 소망의 내용을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의 공식화 과정에서 CCRT방법과 ICF방법을 비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CCRT의 소망(wish)과 ICF의 소망(wish)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CCRT의 요소중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타인의 반응(NRO)과, ICF의 Fear중 대인관계와 연관된 Fear간에는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NRO와 Fear를 비교해 볼 것이다.

### 3.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소망에 대한 연구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기초하여 그들이 상대방과 어떤 양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상대방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 그들의 내적 소망과 표현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Coney (1976)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의 증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고, 직접적인 불편함과 적대감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혐오적이다. 우울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의 혐오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진실되지 않은 재보증과 지지를 함으로써 죄책감을 가지며, 동시에 우울한 사람을 거절



하고 회피하게 된다.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그들의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자신이 수용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관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안전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심하게 우울증상과 고통을 나타내며, 이것은 미래의 사회적 과정 또한 우울하도록 자극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Cony(1976)등은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우울증 환자, 우울하지 않은 환자, 정상통제 집단과 전화로 이야기 하였다. 이중 우울증 집단과 이야기한 피험자들은 환자에 대해 더욱 우울하고, 불안하고, 적대적이며 거절적으로 지각하였고, 미래의 사회적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바램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Conye, 1976a; Hammer & Peters, 1977, 1978).

이에 뒤이어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평가하면서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적 과정을 보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피험자가 비교적 짧게(2주) 또는 길게(1년) 알고 지내던 가설적인(hypothetical) 우울한 사람, 그리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피험자의 반응을 평가 하였다(Sacco, Dunn, 1985). 연구결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한 피험자들은 기꺼이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의 사회적 접촉을 원했으며 미래에도 그들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우울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던 피험자의 정서

적 반응은 우울한 사람을 향해 더욱 분노적이고 적대적이며 사회적 거부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무드(mood)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절당한다는 Cony(1976b)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우울증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통해 대인관계적 양상을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Arieti와 Bemporad(1980)는 우울증의 유형을 자기의 기준을 내면화하는데 실패하여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내재화하고 그를 위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의존적인 유형은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며, 매달리기, 수동성, 조작, 회피 등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목표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유형은 자신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은둔적이고 강박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Beck(1983)은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긍정적 자기평가를 대인관계에 의존하는 사회적경향(sociotropy)과, 성취와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율적경향(autonomy)으로 구분 하였다. 사회적경향은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가치를 두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경향이 높은 사람이 우울해지면 주로 상실감을 느끼고, 사회적 만족을 느끼려고 시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사회적 환경에 더욱 반응적이 된다. 즉 다른 사람의 사랑, 인정, 이해를 얻기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 이들은 수동적인 소망과 받고자하는 소망(수용, 친밀감, 이해, 지지, 안내), 자기애적 소망(존중, 특권, 지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타당화시킨다. 반면 자율적경향은 자신의 독립, 동기, 개인적 권리를 보존하고 증가시키는데 가치를 두는 태도를 말한다.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해지면 주로 패배감을 느끼고, 환경으로부터 철회하며, 사람들을 회피한다고 한다.

한편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례공식화방법을 적용하여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자신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Eckert, Luborsky, Barber & Crits-christoph(1990)는 DSM-III-R에 의해 주요우울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사례공식화 방법인 CCRT를 적용시켰다. 21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이전에 RAP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후 CCRT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낸 소망은 '가까워지고 싶다,수용받고 싶다(71%)'와, '사랑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67%)' 이었고, 타인의 반응에 대해 21명 모두가 '거부하다,대적하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반응 에서도 실망적이고 우울하다(90%), 무기력하다(90%)라는 부정적 반응이 현저 하였다. CCRT요소와 우울증의 심각성 사이의 관계를 검증해본 결과 더 우울한 환자일수록 더욱 다른 사람과 가까

워지기를 원했다. 또한 HSRs(health-sickness rating scale; Luborsky,1975)와 Sc90(symptom checklist-90)로 평가한 정신과적 심각성 수준이 증가할 수록 환자들은 그들 자신이 더욱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었다 (Eckert, Luborsky, Barber & Crits-christoph, 1990).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해 Blatt, Quinlan은 우울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임상적 장애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적 우울상태에 대한 연구는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상적 우울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들은 500명의 여자 대학생과 160명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경험에 관한 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 questionnaire), 기분척도(wessman-ricks mood scale), 자살관여질문지(death-concern questionnaire)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경험은 의존성, 자기비난 및 효율성(efficacy)과 연관 있으며 다른 척도들과도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얻으려는 욕구와 자신의 무력함을 비난하는점,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아간의 격차가 생기는점 등이 우울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eck(1978)은 일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현상에 대해 논하면서, 우울현상이 대학생들에게 많고, 그 현상은 약한 상태에서 아주 심한 상태로 까지 퍼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새로운 상황

에 접하는 기회가 많고, 그들에게 미치는 압력과 외로움을 달래줄 지지적 존재가 없는 문제등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왜곡(distortion)을 통해 거부, 상실, 실패등의 독특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인해 자기자신을 결함이 있고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자기비난, 슬픔, 자존감 저하, 흥미상실등의 정서적 증상과 식욕상실, 수면장애, 피로 등의 신체적 증상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Beck은 Pennsylvania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왜곡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그들 중 1/3은 그들이 행복할 때 어떠한가라는 것을 답하게 하고, 1/3은 슬플때, 1/3은 외로울 때 어떠한가라는 것을 답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대인관계에 대하여 다르게 대답하였다. 즉, 슬픈 감정과 외로운 감정의 학생들은 행복한 감정의 학생들 보다 의지할 데가 없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이는 자기네들이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 자신에게 실망하고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과 관련하여 Krantz와 Hammen(1979)은 우울증과 인지적 왜곡과의 상관을 연구하였다. Beck이 주장한 우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기격하의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6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질문지와 우울증 척도를 대학생 집단과 정신과 환자집단에 실시 하였다. 그결과 두집단에서 모두 우울 경향이 높을수록 인지적 왜곡 경향이 높았다.

인지적 왜곡의 한 측면인 역기능적 태도를 주제로 우울한 대학생과 우울증 환자들간의 역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 정도와 각 집단에서 독특한 역기능적 태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나승규 1993). 그 결과 우울증 수준에 따라서 역기능적 태도 정도는 우울증 환자, 많이 우울한 대학생, 그리고 경미하게 우울한 대학생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한 정도가 클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성, 몇몇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 받고 싶은 욕구, 어떤 일에서든지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한 성취의식, 타인에 대한 과염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또한 각 우울집단별 역기능적 태도의 구성요인으로는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많이 우울한 대학생 집단에서는 의존성, 그리고 경미하게 우울한 대학생 집단에서는 강한 성취의식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는 초기의 비탄과 상실감과 연합된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갖게되어, 자신은 한가지 주요 분야에서 확실히 뛰어나야 될뿐만 아니라 중요인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또한 많이 우울한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예를들면 질병, 죽음등 상실과 이별에 관련된 것)에 대한 괴로운 사고가 더 많아, 자신의 가치와 행복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달려 있으며, 타인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 의존하려는 소망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거부 되는 것에 과염려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우울 집단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후에 나타나는 행동상의

결과와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완벽할 정도로 높은 자기-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짜증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요구해 오는 것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존심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구 목적 및 가설

우울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우울증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게 하는 대인관계적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왔다 (Conye, 1976a; Hammer & Peters, 1977, 1978). 많은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고, 미래의 사회적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바램을 갖게 하며,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수행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갈등적 요소를 포함하게 하고, 이것은 다시 우울한 사람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는 반응적 측면만을 설명한다.

Beck(1983)은 우울증의 유형을 사회적 경향과 자율적 경향으로 구분하면서 그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을 기술하였다. 한편, 임상적 우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적 우울상태에 대해,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Blatt, Quinlan 1976; Beck 1978; sktmdrb 1993). 이에 따르면 우울은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얻으려는 욕구와 자신의

무력감을 비난하는점 등과 관련이 있고, 우울한 사람들은 왜곡을 통해 자기의 경험을 거부, 상실, 실패등의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울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양상을 구분해 주고, 우울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지와 정서적 측면을 설명하며, 우울이 정신과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장면에서도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증세의 하나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실제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우울한 내담자가 타인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내담자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하지 못한다.

Eckert, Luborsky, Barber & Crits-christoph(1990)는 사례공식화 방법인 CCRT를 이용하여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검증하였다. 우울증 환자들의 CCRT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낸 소망은 '가까워지고 싶다, 수용받고 싶다'와 '사랑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이었고, 타인의 반응에 대해 피험자인 우울증 환자 모두가 '거부하다,대적하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도 '실망적이고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라는 부정적 반응이 현저하였다.

위에 제시된 CCRT 분석결과는 우울한 환자들의 대인관계 양상을 명료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중 수용과 사랑 그리고 이해를 받고 싶어 하는 내담자의 소망은 특히 우울증이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개념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ICF에서 Erikson의 사회심리발달단계의 소

망동기 내용에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미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싶다, 남이 나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등의 소망동기가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여진 우울한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와 일치하며, CCRT에서 밝혀진 우울한 사람들의 기대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울한 사람들에게 CCRT뿐만 아니라 동시에 ICF를 적용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대인관계 패턴은 물론 중심되는 내적 소망을 알아내고, 두 공식화에서 우울한 사람들의 소망이 유사하다는 것을 검증한다면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울경향은 임상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학교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 역시 우울을 많이 호소하며, 그에 따른 부적응과 대인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학교장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 중요한 사례공식화 방법인 CCRT와 ICF 방법을 사용하여 우울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 갈등을 찾아내고, 아래에 제기된 연구문제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우울한 대학생 집단은 공통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1 - 1. 우울한 사람들은 CCRT의 W에서 ‘사랑과 이해받고 싶다’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일 것이다.

1 - 2. 우울한 사람들은 CCRT의 RO에서 ‘거부하고 반대한다’의 항목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일 것이다.

1 - 3. 우울한 사람들은 CCRT의 RS에서 ‘우울하고 실망한다’의 항목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일 것이다.

둘째, 우울한 대학생 집단은 특징적인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2 - 1. 우울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연관된 ICF의 Wish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특정한 내적 소망을 드러낼 것이다.

2 - 2. 우울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연관된 ICF의 Fear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특정한 내적 공포를 드러낼 것이다.

## 연구 방법

### 1. 피험자

일상생활의 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160명을 대상으로 BDI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0-9점 사이에 속한 학생은 81명이었고, 이들중 무선으로 10명을 뽑아 우울하지않은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1-28점 사이에있는 14명중 무선으로 10명을 우울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48점의 극단치를 얻은 1명은 제외시킴). 따라서 총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남자 11명, 여자 9명).

## 2. 평가 도구

우울증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BDI는 우울증상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영역을 측정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것을 나타낸다. Beck에 의하면 0 - 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 - 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 - 23점은 상당한 우울상태, 24점 이상은 심한 우울상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이 번안한 것 (1991)을 사용하였다. 이영호의 연구결과 신뢰도(cronbach -  $\alpha$ )는 .80 이었다.

## 3. 면담 방법

사례공식화 분석에는 보통 상담의 초기 2-3 회기 동안의 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 전체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내담자의 관계패턴과 내적 갈등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Luborsky등이 고안한 RAP인터뷰(The Relationship Anecdotes Paradigm Interview)에 기초한 면담 방법을 응용 하였다. RAP인터뷰를 통해서도 사례공식화 분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장기적인 심리치료 회기에서와 똑같이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거의 모든 샘플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Luborsky(1990)의 연구에 의하면, RAP인터뷰의 평균 시간은 26분이었고,

이야기속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21%, 연인관계가 18%, 형제자매가 9%, 그외의 사람들이 52%였다. 각 환자 관계일화의 평균 81%가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이었으며, 이야기속의 사건이 발생된 시기는 최근 성인기(지난주)가 31%, 과거 성인기가 53%, 청소년기가 8%, 아동기(10세이하)가 8%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일화의 지배적인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73%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정서 19%, 혼합적이거나 중립적 정서가 8%였다.

Barber, Luborsky 그리고 Crits-christoph (1995)는 심리치료 이전에 RAP인터뷰로부터 얻어진 CCRT와 심리치료회기 동안에 이 끌어인 CCRT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명의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RAP인터뷰로부터 뽑아진 CCRT의 신뢰도(Weighted Kappa)는 .56이었고, 치료회기로부터 이끌어인 CCRT의 신뢰도는 .77이었다. 이 두세트의 군집들을 독립적인 팀들이 비교하였는데 Wish 77%, RO 100%, RS 77%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산출되었다. 이는 치료전 RAP인터뷰로부터의 자료와 초기 치료 회기에서 얻어진 CCRT가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치료에서 환자의 정신역동적 주제를 결정하는데 RAP인터뷰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 연구 절차

### 1) 면담 절차

BDI 검사결과 우울한 사람으로 선정된 10명

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된 10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동의한 내담자와 시간 약속을 정하여 면담을 실시 하였다. 내담자들에게 양해를 구한후, 120분용 테잎을 사용하여 면담 내용을 녹음 하였다. 면담은 CCRT뿐만 아니라 ICF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 상담 2-3회기 정도에 해당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현재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3명의 상담자에 의해 시행 되었다. 이들은 모두 심리학과나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가 자격증이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중요한 대인관계 양상과, 내담자가 내적으로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면담을 실시 했다. 내담자는 그들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특정한 한 개인과 상호작용한 내용을 보고 하였다. 내담자가 어떤 관계 사건을 말하든, 현재나 과거의 사건을 선택하든 자유이며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무슨 말을했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으며, 상호작용의 끝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대화샘플을 포함하도록 격려했다.

## 2) 자료 분석

### (1) 축어록 작성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20명의 녹음된 면담 내용을 풀어서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축어록 작성에는 한숨, 웃음, 침묵시간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 (2) CCRT 분석

#### ① 관계일화( RE )분류

2명의 평정자(평정자들은 내담자들의 우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가 축어록을 읽으며 각 면담에서의 관계일화(RE)를 선정기준에 따라 발췌 하였다. 각 평정자들은 축어록의 왼쪽 여백에 일화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 일화의 번호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대상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끝난 후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이루어진 일화의 완전성(completeness)을 평가하였다. 처음 뽑아낸 일화수는 평정자에 따라 한두개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각 일화에 대해 완전성 정도를 평가해보니 높은 점수(2.5점 이상)를 받은 일화에서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평정자끼리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택된 일화만을 분석 하였다. 처음에는 일화의 주된 대상으로 타인만을 고려하였으나 타인과의 관계일화를 별로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내담자도 많다는 사실이 연습과정에서 드러나 일화의 대상으로 자기(self)도 분석에 포함 시켰다.

#### ② 일화 내용을 의미단위로 나누기

선택된 일화중에서 주된 대상이 같은 일화가 전체 회기에서 여러번 나올 경우 “\_\_페이지 \_\_ 일화에서 연결됨”이라고 축어록에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의 일화로 간주하여 보고 내용을

한꺼번에 합쳤다. 합쳐진 내용(몇개의 절)은 의 미단위에 따라 여러개의 문장으로 나누었다.

### ③ W, RO, RS 평정

평정자 2명이 이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CCRT코딩 체계를 숙지하고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인후 발췌된 일화에서 CCRT유목들을 평정하였다. 대인관계 패턴을 알기위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표준화된 유목없이 평정자 자신의 생각대로 W, RO, RS를 기록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그 내담자의 주된 대인관계 패턴으로 하는 ‘맞춤복 체계(Tailor-made system)’이다. 둘째는 이미 표준화된 유목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이미 유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정자가 어떠한 유목을 생각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중요 내용을 간과할 가능성이 없고, 평정자간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혼돈이 일어나지 않으며, 자료를 수량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정자간 차이를 줄이고 객관적인 평정을 위해 W, RO, RS 세 요소를 각각 표준화된 범주에 따라 평정하여 빈도로 정리하였다.

### (3) ICF 분석

평정자들은 축어록 전체를 여러번 읽고서 소망, 공포, 갈등의 산물, 스트레스원천, 최적의 적응수준등의 요소별로 내용을 분속한다. 평정자는 소망내용을 뽑아 낸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첨가한다. 이과정을 공포에 대해서도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Perry등이 사회심리발달 8단계에 따라 고안한 표준화된 유목들을 사용하여 소망과 공포동기만을 평정하

였다. 2명의 평정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분석절차와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사전에 여러번의 연습과정을 거쳤다.

## 연구 결과

### 1. CCRT 분석결과

#### 1) CCRT의 W, RO, RS 의 빈도

우울 집단(10사례)과 비우울 집단(10사례) 총 20사례에서 W, RO, RS 세 요소를 각각 8개의 표준화된 항목에 따라 평정하여 빈도로 정리하였다. 각 사례별로 빈도를 산출 하였으며, 동일 집단내에서 각 사례의 빈도를 합산하였다. 표 1은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에서 산출된 CCRT의 W, RO, RS의 빈도이다.

표 1에서 보면 우울한 집단이 가장 많이 나타낸 W는 ‘사랑받고 이해 받고 싶다’(61)와 ‘가까이 하고 수용받고 싶다’(41)이다. 비우울 집단은 ‘사랑받고 이해 받고 싶다’(29)와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적이고 싶다’(25)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RO를 보면 NRO에 대해서 우울한 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모두 ‘거부하고 반대한다(58/26), 기분 나쁘다’(27/26)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PRO에 대해서도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모두 ‘나를 좋아함’(31/26)에 빈도가 높다. RS에 대한 것을 보면 우울 집단은 ‘실망하고 우울하다’(74)와 ‘무력감’(55)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음’(53)의 부정적 반응인 NRS의 빈도가 높다. 그리고 비우울 집단에서 높은 빈도의 내용은 ‘받아 들이지 않음’(44)과 ‘존중하고 받아 들임’(32)으로 NRS와 PRS가 동시에 높다. 두집



표 1.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에서 CCRT의 W, RO, RS 빈도

| 내용 목록            | 집 단 |       |
|------------------|-----|-------|
|                  | 우 울 | 비 우 울 |
| 1. 자기주장, 독립적     | 20  | 25    |
| 2. 타인에게 반대       | 1   | 0     |
| 3. 타인을 통제        | 0   | 0     |
| 4. 거리유지, 갈등회피    | 13  | 15    |
| 5. 가까이하고 수용      | 41  | 21    |
| 6. 사랑받고 이해받음     | 61  | 29    |
| 7. 기분 좋고 편안함     | 19  | 17    |
| 8. 성취하고 타인 도움    | 22  | 15    |
| 1. 강함            | 15  | 6     |
| 6. 도움이 됨         | 15  | 14    |
| 7. 나를 좋아함        | 31  | 26    |
| 8. 이해함           | 7   | 8     |
| 2. 통제함           | 19  | 20    |
| 3. 기분 나쁨         | 27  | 26    |
| 4. 슬픔            | 7   | 10    |
| 5. 거부하고 반대       | 58  | 26    |
| 1. 도움을 줌         | 3   | 8     |
| 3. 존중하고 받아들임     | 19  | 32    |
| 5. 자기통제적 자신감     | 5   | 3     |
| 2. 받아들이지 않음      | 53  | 44    |
| 4. 타인에게 반대, 상처 줌 | 6   | 7     |
| 6. 무력감           | 55  | 23    |
| 7. 실망, 우울        | 74  | 22    |
| 8. 불안, 수치심       | 23  | 13    |

단에서 각각 높은 빈도로 밝혀진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 빈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2) CCRT분석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평정자들은 W, RO, RS 세 요소에서 각각 표 준화된 8개 항목에 따라 평정하였고, 평정 결과는 빈도로 정리 되었다. CCRT의 자료가 빈도자료이기 때문에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선형로그분석(log-linear analysis)을 하였다.

표 2. W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 * 평정     | 19  | 7.330         | .9922 | 2    |
| 사례 * 항목     | 133 | 208.064       | .0000 | 2    |
| 평정자 * 항목    | 7   | 2.403         | .9342 | 2    |
| 사 례         | 19  | 69.132        | .0000 | 2    |
| 평정자         | 1   | .013          | .9086 | 2    |
| 항목          | 7   | 213.105       | .0000 | 2    |

표 2는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에 의해 산출된 W의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결과이다. 평정자를 포함하는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참조). 이는 평정자가 8개 항목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평정자가 사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정자가 사례의 각 8개 항목에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타인의 반응(RO)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 자료 분석 결과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각각은 둘을 합친 전체 RO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RO에서도 평정자를 포함하는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지면관계로 표 제시 생략). 즉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반응(RS)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를 포함한다. 자료분석 결과,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역시 각각은 둘을 합친 전체 RS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RS에서도 평정자를 포함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지면관계로 표제시 생략). 즉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세가지 요소 모두에서 CCRT 평정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상당히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 3) CCRT 분석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차이

CCRT 세 요소의 항목들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CCRT의 빈도자료를 이용하여 선형로그분석(log-linear analysis)을 하였다.

표 3. W, RO, RS에 대한 집단간 차이

|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ation |
|----|-------------|----|---------------|-------|-----------|
| W  | 우울 항목       | 1  | 8.261         | .0040 | 2         |
|    |             | 7  | 213.105       | .0000 | 2         |
| RO | 우울 항목       | 1  | 5.888         | .0152 | 2         |
|    |             | 7  | 98.565        | .0000 | 2         |
| RS | 우울 항목       | 1  | 19.623        | .0000 | 2         |
|    |             | 7  | 220.645       | .0000 | 2         |

표 3은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으로 산출한 W, RO, RS에 대한 주효과의 결과이다.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W, RO, RS에 대한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 하였다(표 3 참조). 이것은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각 항목에 대한 빈도에서 차이가 나며, 두 집단이 대표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표 1 참조). 즉 두 집단의 W, RO, RS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ICF의 분석결과

평정자들은 표준화된 소망과 공포 항목에 따라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고, 평정결과는 빈도로 정리되었다.

### 1) 소망동기의 빈도

표 4는 소망동기의 빈도이다. 모든 항목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빈도가 있는 소망동기의 항목만을 제시 하였다. 표 4에서 보면 우울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칭찬받고 특별하고 싶다(23)’와 ‘완전하기를 바라고 수치심을 피하고 싶다(14)’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12)’이다. 비우울한 집단은 ‘의미와 목적을 갖고 싶다’(8)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8), ‘완전하기를 바라고 수치심을 피하고 싶다’(7)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4. 소망동기 빈도

| 단 계                    | 내 용 목 록                  | 집 단 |    |
|------------------------|--------------------------|-----|----|
|                        |                          | 우 율 | 비율 |
| 1단계<br>신뢰감 대<br>불신감    | 3.요구를 충족시키고 싶다           | 1   | 3  |
|                        | 4.요구를 서로 소통하고,이끌어내고 싶다   | 3   | 2  |
|                        | 5.편안하고 위로받고 싶다           | 2   | 2  |
|                        | 6.남을 믿고 싶다               | 0   | 1  |
|                        | 7.의미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다    | 0   | 1  |
|                        | 8.남이 나를 수용해주기 바란다        | 2   | 2  |
|                        | 9.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싶다         | 9   | 5  |
|                        | 10.개인생활을 존중받고 싶다         | 8   | 3  |
| 2단계<br>자율성 대<br>수치, 의심 | 11.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싶다        | 3   | 5  |
|                        | 12.복수하고 싶다               | 2   | 1  |
|                        | 13.원하는 것을 모두 하고 싶다       | 3   | 2  |
|                        | 14.남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다       | 10  | 0  |
|                        | 15.자발적이고 걱정이 없기를 바란다     | 0   | 2  |
|                        | 16.완전하기를 바라고 수치심을 피하고 싶다 | 14  | 7  |
|                        | 17.나를 주장하고 싶다            | 4   | 1  |
|                        | 18.죄책감으로 부터 해방되고 싶다      | 0   | 1  |
| 3단계<br>술선성 대<br>죄책감    | 19.칭찬받고,특별하고 싶다          | 23  | 6  |
|                        | 20.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 11  | 5  |
|                        | 21.협동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        | 0   | 4  |
|                        | 22.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상받고 싶다    | 1   | 5  |
|                        | 23.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 3   | 5  |
|                        | 24.나의 행동을 존중받고 싶다        | 2   | 1  |
| 5단계<br>정체감 대<br>정체감 혼란 | 25.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다      | 2   | 4  |
|                        | 26.자기를 발전시키는 관계를 갖고 싶다   | 3   | 2  |
|                        | 28.사회집단에 속하고 잘 어울리고 싶다   | 9   | 5  |
|                        | 29.남의 관심을 끌고 친구가 되고 싶다   | 7   | 4  |
|                        | 30.의미와 목적을 갖고 싶다         | 7   | 8  |
|                        | 31.성적 충족을 얻고 싶다          | 0   | 0  |
| 6단계<br>친밀감 대<br>고립     | 32.친밀한 관계를갖고,사랑하고 사랑받고싶다 | 12  | 8  |
|                        | 33.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갖고 싶다     | 0   | 2  |
| 7단계<br>생산성 대<br>고립     | 34-38                    | 0   | 0  |
| 8단계<br>통합감 대<br>절망감    | 39-40                    | 0   | 0  |

## 2) 공포동기의 빈도

표 5는 공포동기의 빈도이다. 모든 항목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빈도가 있는 공포 동기 항목만을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우울한 집단은 ‘남에게 상처주고 죄책감 느끼는 것이 두렵다’(13)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두렵다’(6), ‘칭찬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함이

두렵다’(5)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우울 집단이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항목의 내용은 ‘칭찬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함이 두렵다’(11)와 ‘경쟁에서 지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4)로 나타났다.

표 5. 공포동기 빈도

| 단 계                 | 목 록 내 용                    | 집 단 |     |
|---------------------|----------------------------|-----|-----|
|                     |                            | 우 울 | 비우울 |
| 1단계<br>신뢰감 대 불신감    | 1.신체적인 손상을 받을까봐 두렵다        | 2   | 0   |
|                     | 3.버림받을까봐 두렵다               | 1   | 0   |
|                     | 4.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 0   | 1   |
|                     | 5.의사소통을 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 0   | 1   |
|                     | 6.남한테 의존하는 것이 두렵다          | 3   | 0   |
|                     | 7.실망할까봐 두렵다                | 4   | 0   |
|                     | 9.남을 믿는 것이 두렵다             | 3   | 0   |
|                     | 10.고통스런 감정이 겁난다            | 1   | 2   |
|                     | 12.감정 때문에 분열될 것이 두렵다       | 1   | 0   |
|                     | 13.자기통제를 잃는 것이 두렵다         | 0   | 1   |
| 2단계<br>자율성 대 수치, 의심 | 14.비판이나 벌을 받는 것이 두렵다       | 0   | 1   |
|                     | 15.지배당하고 통제당하는 것이 두렵다      | 1   | 2   |
|                     | 16.힘을 잃고 무력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    | 3   | 0   |
|                     | 17.독립심이나 자유를 잃는 것이 두렵다     | 2   | 1   |
|                     | 18.칭찬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함이 두렵다   | 5   | 11  |
| 3단계<br>솔선성 대 죄책감    | 19.경쟁에서 지는 것이 두렵다          | 1   | 6   |
|                     | 20.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 3   | 4   |
|                     | 21.남에게 상처주고 죄책감 느끼는 것이 두렵다 | 13  | 0   |
| 4단계<br>근면성 대 열등감    | 23.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두렵다         | 6   | 1   |
|                     | 24.친구가 없는 것이 두렵다           | 1   | 0   |
| 5단계<br>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 26.정체감 혼란이 두렵다             | 0   | 2   |
|                     | 27.목표나 방향이 없는 것이 두렵다       | 4   | 1   |
|                     | 28.좋은 지도자나 인도자가 없는 것이 두렵다  | 3   | 3   |
|                     | 29.지도나 충고를 받아들여기가 두렵다      | 4   | 0   |
|                     | 30.관심을 끌지 못할까봐 두렵다         | 1   | 0   |
| 6단계<br>친밀감 대 고립     | 31.친밀감과 밀접함이 두렵다           | 4   | 0   |
| 7단계<br>생산성 대 고립     | 34-37                      | 0   | 0   |
| 8단계<br>통합감 대 절망감    | 38-40                      | 0   | 0   |

### 3) ICF의 평정자간 신뢰도

평정자들은 소망동기와 공포동기를 표준화된 40개의 항목에 따라 평정하였고, 평정결과는 빈도로 정리되었다. ICF의 Wish와 Fear의 자료가 빈도자료이기 때문에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선형로그분석(log-linear analysis)을 하였다. 전체는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단계마다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약하므로, 단계별로 분석하지 않고 1-4단계를 전반부, 5-8단계를 후반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망동기에 대한 전반부와 후반부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지면관계로 표제시 생략). 이것은 소망동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포동기 전반부와 후반부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유의미했다(지면관계로 표제시 생략). 이것은 공포동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4) ICF의 분석에서 우울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차이

ICF의 소망동기와 공포동기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1-4단계를 전반부, 5-8단계를 후반부로 하여 선형로그분석을 하였다.

#### (1) 소망동기의 집단간 차이

표 6은 소망동기 전후반부에 대해 산출된 주효과의 결과이다. 소망동기 전반부의 주효과는 유의미 하였다(표 6 참조). 이것은 우울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소망동기 전반부의 각 항목에서

차이가 나며, 두집단이 대표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자세한 내용은 표 4 참조). 소망동기 후반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6 참조). 이것은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소망동기 후반부의 각 항목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두집단이 대표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6. 소망동기의 집단간 차이

|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전 반 부 | 우 울         | 1  | 10.693        | .0011 | 2    |
|       | 항 목         | 23 | 136.564       | .0000 | 2    |
| 후 반 부 | 우 울         | 1  | .014          | .9042 | 2    |
|       | 항 목         | 15 | 125.800       | .0000 | 2    |

#### (2) 공포동기의 집단간 차이

표 7은 공포동기 전후반부에 대해 산출된 주효과의 결과이다. 공포동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7 참조). 이것은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공포동기 전후반부의 각 항목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두집단이 대표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우울집단과 비우울 집단이 공포동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공포동기의 집단간 차이

|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전반부 | 우 울         | 1  | 3.595         | .0580 | 2    |
|     | 항 목         | 23 | 88.006        | .0000 | 2    |
| 후반부 | 우 울         | 1  | 3.618         | .0572 | 2    |
|     | 항 목         | 15 | 50.859        | .0000 | 2    |

## 〈추가 분석〉

앞부분에서 연구가설과 관련된 결과들을 기술하였다. 다음에는 본 연구 가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CCRT와 ICF분석결과에 덧붙여 두가지 공식화 방법에서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요소들을 추가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연구목적 부분 참조). CCRT의 W와 ICF의 W, 그리고 CCRT의 NRO와 ICF의 Fear는 분석내용을 검토해 보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위의 두가지 요소들 간에 유사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 (1) CCRT의 Wish와 ICF의 Wish 비교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사례를 CCRT와 ICF방법으로 분석하여 각 집단에서 가장 빈번한 W 3개씩을 뽑아 각각 짝을 지어 유사성을 평정하였다. CCRT방법의 분석 결과 우울집단에서는 6, 5, 8번의 W가, 비우울집단에서는 6, 1, 5번의 W가 뽑혔다. 또한 동일한 사례를 ICF로 분석하여 우울집단에서는 19, 16, 32번의 W, 비우울 집단에서는 30, 32, 16번의 W가 뽑혔다. 표 8에 제시된 각 비교집단간에는 9가지의 비교쌍이 있고, 이것의 유사성을 3명의 평정자가 7점척도에 평정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별로 평균을 내어 t-검증을 하였다.

표 8. CCRT의 W와 ICF의 W비교

|    | 집 단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rob> t |
|----|-----------------|---|------|---------|--------|---------|
| 1. | 가) 우울CW - 우울IW  | 9 | 5.11 | 0.95742 | 2.3926 | 0.0307  |
|    | 나) 우울CW - 비우울IW | 9 | 3.81 | 1.31351 | 2.3926 |         |
| 2. | 다) 비우울CW -우울IW  | 9 | 3.81 | 1.51025 | 0.1965 | 0.8467  |
|    | 라) 비우울CW -비우울IW | 9 | 3.66 | 1.68324 | 0.1965 |         |

표 9. CCRT NRO와 ICF Fear의 비교

|    | 집 단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rob> t |
|----|-----------------|---|-------|--------|--------|---------|
| 1. | 가) 우울NRO - 우울F  | 4 | 4.083 | 1.5723 | 0.9839 | 0.3697  |
|    | 나) 우울NRO - 비우울F | 4 | 3.166 | 1.0000 | 0.9839 |         |
| 2. | 다) 비우울NRO - 우울F | 4 | 4.333 | 1.5634 | 1.1206 | 0.3173  |
|    | 라) 비우울NRO -비우울F | 4 | 3.333 | 0.8606 | 1.1206 |         |

표 8은 CCRT의 W와 ICF의 W간의 유사성 비교 결과이다. 표 8에서 집단 1을 보면 가)는 우울집단의 대표적인 CCRT W와 ICF W를 짝을 지은 것이고, 나)는 우울 집단의 CCRT W와 비우울 집단의 ICF W를 짝을 지어 비교한 것이다. 가)집단과 나)집단 간에는 평균에서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유의미 하였다. 이것은 동일한 집단에서 CCRT W와 ICF W간의 유사성 정도가 동일하지 않은 집단에서 CCRT W와 ICF W간의 유사성 정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CCRT W와 ICF W가 유사한 내용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 2에서 다)는 비우울 집단의 대표적인 CCRT W와 우울 집단의 ICF W의 비교쌍에 대한 것이고, 라)는 비우울 집단의 CCRT W와 ICF W를 짝지어 비교한 것이다. 다)와 라)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8 참조). 이는 비우울 집단에서 CCRT W와 ICF W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2) CCRT의 NRO와 ICF의 Fear 비교

CCRT의 NRO 항목중 우울한 집단과 비우울 집단에서 각각 높은 빈도를 보인 2개의 항목과, 두 집단에서 빈도가 높은 ICF의 Fear 항목 2개씩을 각각 짝을 지어 유사성을 평정한 후, 각 집단별로 평균을 내어 t-검증을 하였다. CCRT의 분석결과 우울한 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모두에서 NRO의 5번과 3번 항목이 뽑혔다. 그리고 ICF의 Fear 분석에서 우울 집단은 21, 18번, 비우울한 집단은 18, 28번의 항목이 뽑혔다. 표 9에 제시된 각 비교집단간에는 9가지 비교쌍이 있으며 이것의 유사성을 3명의

평정자가 7점척도에 평정한 것이다. 표 12는 우울한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의 대표적인 CCRT NRO와 ICF Fear간에 짝을 지어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든 집단의 CCRT NRO와 ICF Fear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9 참조). 이것은 CCRT의 NRO와 ICF의 Fear가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분석하고, 우울한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 갈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우울한 대학생들의 행동패턴과 그 이면의 소망과 공포를 밝히기 위해 사례공식화 방법인 CCRT와 ICF를 동일한 사례에 적용시켜 보았고, 그 분석 결과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에 분석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우울한 대학생 집단이 공통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CRT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각 요소(W, RO, RS)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CCRT의 신뢰도는 김수현(1994)의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관심이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에 있다면 그리고 변화양상을 치료성과와 연결지어 연구하고자 한다면 CCRT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우울한 대학생 집단은 소망(W)과,

타인의 반응(RO) 그리고 자신의 반응(RS)에서 우울하지 않은 대학생 집단과 차이가 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한 집단의 대인관계 패턴을 각 요소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낸 소망은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이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거부하고 반대한다' 이었으며, 이에 따른 자신의 반응은 '실망하고 우울하다'로 밝혀졌다. 이것은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문제에서 예측했던 우울한 집단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가설 1-1, 1-2, 1-3을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Luborsky (1990) 등이 우울증 환자에게 CCRT를 적용시켜 얻어낸 결과와 일치하며, 많은 연구들이 설명하는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과 유사한 내용이다 (Conye 1976, Beck 1978, Sacco 1985). 이것은 또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결과이므로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정상적 우울상태가 임상적 장애인 우울증의 연장이라는 Blatt, Quinlan의(1979) 주장을 지지한다.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W, RO, RS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은 모두 W에서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장 많이 보인다. 그러나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빈도가 훨씬 높다 (61/29). 이것은 우울하거나 우울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지나치게 많이 갖게 되면 우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소망 항목을 보면 우울 집단은 '가까

이 하고 수용받고 싶다'이고, 비우울 집단은 '자신을 주장하고 독립적이고 싶다'이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더욱 치중하여 친밀감을 갖고 수용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고, 우울하지 않은 집단은 자기의 주장과 독립에 대한 바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이 사랑받고 싶다는 일차적인 욕구는 유사하지만, 2차적으로 우울한 집단은 계속 상대방 위주로 의존하고 받아들여 지기를 원하는 반면, 비우울 집단은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싶은 욕구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타인지향성과 자기독립성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정도에 따른 역기능적 태도를 알아본 나승규(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우울증 수준에 따라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많이 우울한 대학생 집단에서는 의존성, 그리고 경미하게 우울한 대학생 집단에서는 강한 성취의식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며 그것이 경미할 수록 자신을 주장하고 독립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RO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적인 타인의 반응을 보면 우울 집단에서는 '거부하고 반대한다'의 반응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58), 비우울 집단은 '기분 나빠한다, 거부하고 반대한다'(26/26)의 양항목에 동시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두집단은 모두 '거부하고 반대한다'의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우울집단이 이



반응을 배이상 많이 보이고 있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사람이 자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더욱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울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상대방이 우울한 사람을 거절하고 회피하며, 우울한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분노하는 부정적 무드를 갖는다고 보고하는 연구들(Coney 1976, Hammer & Peters, 1978, Sacco & Dunn, 1985)의 내용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비우울 집단에서는 타인의 반응이 모든 항목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우울 집단에서는 긍정반응, 부정반응을 통털어서 '거부하고 반대한다'의 항목에 뚜렷이 높은 빈도를 보인다. 긍정적인 타인의 반응에서는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에서 모두 '나를 좋아한다'(31/26)는 항목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그밖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써 우울한 사람들은 긍정반응보다는 부정반응에서 비우울 집단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RS에서도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긍정적인 자신의 반응을 보면 '존중하고 받아들임'(19/32)에서 양 집단이 모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또한 비우울 집단이 우울 집단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부정적 자신의 반응을 보면 우울 집단에서 비우울 집단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반응은 '실망하고 우울하다'(74/22)이다. 두번째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은 '무력감'(55/23)으로 이것 역시 두집단간에 차이를 보인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경향이 있고 무력하게 느낀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그들의 패턴으로 인해 자신은 더욱 우울해지고 실망하며 무력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우울한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로 우울한 대학생 집단이 특징적인 내적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갈등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ICF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망동기와 공포동기의 요소는 각각 8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 단계마다 양 집단간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표 4와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계마다의 빈도가 낮아 통계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여덟개 발달단계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우선 소망동기와 공포동기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를 살펴보면 소망동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모두 신뢰롭지 못했다. 반면 공포동기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소망동기와는 달리 전 후반에서 모두 안정적이었다. 이것은 ICF 평정 절차에 객관적이고 세밀한 지침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한 점에도 일부 기인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소망과 욕구를 평정하는데서 평정자간 추론의 다양성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많은 사례의 면담 분량에 비해 평정자 수가 적은 것도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 듯 하다.

네번째로 우울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소망동기의 전반부에서 차이가 났다. 즉 우울한 집단

은 전반부 중 3단계(술선성 대 죄의식)의 ‘칭찬받고 특별하고 싶다’(23) 라는 소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비우울 집단은 2단계(자율성 대 회의)의 ‘완전하기를 바라고 수치심을 피하고 싶다’(7) 라는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민감하며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울한 사람들의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Cony 1976, Beck 1978, 나승규 1993)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후반부의 소망에서는 우울한 집단과 비우울 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울집단에서는 6단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10)는 소망 항목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비우울 집단에서는 5단계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싶다’(8)는 소망 항목이 두드러졌다. 이는 상반부 에서와 같이 우울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며, 그러한 소망들에 기인된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문항의 내용만으로는 이 욕구가 성인간의 건강한 친밀감 형성 욕구인지 또는 신경증적인 애정 욕구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비우울 집단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싶다’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상 현재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집단이 ICF의 소망 항목중 대인관계와 연관된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1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반면 공포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포동기를 전후반부로 구분하지 않고 단계별로 분석하면, 여덟단계 중 1단계(신뢰감 대 불신감)와 4단계(근면성 대 열등감)에서 두집단에 차이가 있었는데 우울집단은 ‘실망할까봐 두렵고, 남을 믿는 것과 남한테 의존하는 것이 두렵다’(1단계),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두렵다’(4단계)의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우울한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거부되는 것을 과염려한다는 이전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들의 공포 역시 대인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것은 본 연구의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번째로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CCRT와 ICF의 분석결과, CCRT의 W와 ICF의 W간에 유사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두 방법의 W를 비교분석 하였다. 유사성 검증에서 우울 집단의 CCRT W와 우울 집단의 ICF W의 유사성 비교는, 우울 집단의 CCRT W와 비우울 집단의 ICF W 비교보다 더 유사함으로써 CCRT의 W와 ICF의 W가 유사한 내용을 측정함을 알 수 있다. CCRT는 본 연구나 이전 연구를 통해 상당히 신뢰로운 방법임이 입증되었으나 본연구에서 ICF 소망동기의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확증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ICF의 신뢰도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시 검증되어야 겠으나 김수현(1996)의 연구에서는 ICF방법이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입증되었

다. 본 연구에서 ICF 신뢰도가 낮은 것은 전체 사례수가 많아서 평정자들의 부담이 컸고 훈련 부족에 일부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11에서 보면, 집단 2의 다) 와 라) 즉, 비우울 집단의 CCRT W와 ICF W간의 유사성 비교는 비우울 집단의 CCRT W와 우울 집단의 ICF W간의 비교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울 집단에 비해서 비우울 집단에 속해 있는 피험자들은 특성이 더욱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울 집단의 피험자들에 비해 공통점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우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공포와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어 CCRT의 NRO와 ICF의 Fear의 유사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두집단에서 위의 요소들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CRT의 NRO와 ICF의 Fear는 서로 유사한 틀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은 양쪽 요소의 항목들 내용을 비교해 보면 좀더 분명해 지는데, NRO는 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타인 반응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Fear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공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ICF 분석으로 우울한 사람들의 소망과 공포 내용을 사회심리발달 단계에 따라 좀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우울집단은 사회심리발달 단계의 상반부에서 '칭찬받고 특별하고 싶다' 라는 소망을, 후반부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라는 소망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것은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인정과 사랑, 수용과 친밀감을 갖기 바란다는 CCRT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며, 선행된 연구들이 보고하는 우울한 사람들의 소망 패턴과도 같은 결과이다. 공포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은 '실망할까봐 두렵고, 남을 믿는 것과 남한테 의존하는 것이 두렵다'의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우울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소망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거부되는 것을 과염려한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한편 비우울 집단의 경우, 완전하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이 되고 싶다는 내적 소망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참 고 문 헌

- 김명선(1981).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 김수현(1994).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CCRT와 PF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지.
- 나승규(1993). 우울한 대학생과 우울증 환자간의 비효율적 태도 비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북대학교
- 이근후, 박영숙(1988).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하나의학사
- 하정혜(1994).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 대인관계 패턴 변화에 관한 시계열 복수사례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Arieti, S., & Bemporad, J. R.(1980). The psychological organiza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369.
- Barber, j.p., & Crits-Christoph, p.(1993). Advances in measure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74-585.
- Barber, j.p.,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 (1990). A guide to the standard catego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In L. Luborsky & P. Crits-Christoph,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Barber, J. P., Luborsky, L., & Crits-Christoph, P. (1995). A Comparison of CCRTs Before psychotherapy and During Early S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145-148.
- Beck, A. T. (1963). Thinking and depression: I. Idiosyncratic cont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9, 324-333.
- Beck, A. T., & Young, J. E. College Blues. *Psychology Today*, 1978, 9, 80-92
- Blatt, S. J., Wein, S. J., Chevron, E., & Quinlan, D. M. (1979). Parental representation and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88-397.
- Clive, J. R. (1991). Sociotropy and autonomy: differential patterns of clinical presentation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74-77.
- Coyne, J. C.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s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186-193.
- Crits-Christoph, P., Demorest, A., & Connolly, M. (1990). Quantitative assessment of interpersonal themes over the course o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7, 514-521.
-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1990). Change in CCRT pervasiveness during psychotherapy, In Luborsky, L.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Dahl, L., Popp, C., Mellon, L., & Mark, D. (1988). Clinician can agree in assessing relationship patterns in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 1001-1004.
-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Dahl, L., Popp, C., Mellon, L., & Mark, D. (1990). The reliability of choice of narratives and of the CCRT measure, In Luborsky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Ecker, R., Luborsky, L., Barber, J., & Crits-Christoph, P. (1990). The narratives and CCRTs of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In Luborsky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Freud, S. (1957). Mourning and melancholia. In J. Strachey (Ed.), *The standard edition* (Vol. 14). London: Hogarth. (Originally published in 1917).
- Henry, W. P., Schacht, T. E., & Strupp, H. H. (1986).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Application to a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 in differential therapeutic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7-31.
- Horowitz, L. M. (1991). Person Schemas, In Horowitz, L. M. Person Schemas and maladaptive interpersonal patter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ques, P., Barber, J.,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1990). A Guide to the CCRT standard catego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In Luborsky, L.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Lewinsohn, P. M., Biglan, A., & Zeiss, A. M. (1976). Behavior treatment of depression. In P. O. Davidson (Ed.), *The behavior management of anxiety, depression and pain* (pp. 91-146). New York: Brunner.
- Lewinsohn, P. M., & Libet, J. (1972). Pleasant events, activity schedul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9, 291-295

- Luborsky,L.(1990). Alternative measures of the central relationship pattern. In Luborsky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L.(1990). The convergence of Freud's observations about transference and the CCRT evidence, In Luborsky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L.(1990). The Relationship Anecdotes Paradigm(RAP) interview as a versatile source of narratives, In Luborsky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L.(1990). Where we are in understanding transference,In Luborsky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L.(1990).The early development of the CCRT Idea,In Luborsky & Crits-Christoph, P,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e*, New York; Basic Books.
- Perry,J., Augusto,F., & Copper,S.(1989). The assessment of psychodynamic conflicts: I. The reliability of an ideographic method. *Psychiatry*, *52*, 284-301.
- Perry,J.(1994). Assessing psychodynamic patterns using the 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ICF) method. *Psychotherapy Research*,*4(3)*, 238-251.
- Perry, J., Luborsky, L., Silvershatz, G., & Popp,C.(1989). An examination of three method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 based on same videotaped interview. *Psychiatry*, *52*, 302-323.
- Sacco, W.P., Milana,S., & Dunn, V.K.(1985). Effect of depression level and length of acquaintance on reactions of others to a request for hel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728-1737.

# The Interpersonal Pattern and Internal Conflicts of Depressed Undergraduates

Soo Jin Kim Soo Hyun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ing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 pattern and internal conflicts showed commonly by the depressed, tries to prove those issues through the use of two main formalized case methods (CCRT and ICF). In order to research, we singled out ten depressed people and ten non-depressed people respectively by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began interviewing on the basis of RAP interview (The Relationship Anecdotes Paradigm interview). The result of the study proved that the group the depressed undergraduates has a common interpersonal relations pattern which differentiates the former from the group of the non-depressed undergraduates (they turned out not to be depressed by CCRT, more specifically, by W. RO. RS).

Taking the depressed group's pattern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content of each factor, their most desired wish is that (they) 'to be loved and understood,' but the response from others on that is that 'they rejected and opposed.' Accordingly, response of self proved to be disappointed and depressed.

Besides, response from others to the depressed is negative like rejection and objection, and response of the depressed tends to be melancholic, disappointed, and helpless.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 of others to the non-depressed and response of self are relatively positive.

Moreover, the study leads one analyze the depressed person's wish and fear by ICF analysis method. In the early phase of social psychological development the group of the depressed has the wish to be praised and distinguished, but in the late phase the group has the wish to love and be loved with close relations. In the section of fear the depressed showed high frequency on the answer that (they) fear that they are being disappointed, trusting, and depending on others, this fact props up the precedented study result that the depressed worry too much about the wish to rely on others as well as being rejected.

## 부록 1. CCRT 분석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 1) W의 평정자간 신뢰도

표 1은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에 의해 산출된 W의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결과이다. 평정자를 포함하는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표 1 참조). 이는 평정자가 8개 항목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평정자가 사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정자가 사례의 각 8개 항목에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 W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평정자      | 19  | 7.330         | .9922 | 2    |
| 사례*항목       | 133 | 208.064       | .0000 | 2    |
| 평정자*항목      | 7   | 2.403         | .9342 | 2    |
| 사례          | 19  | 69.123        | .0000 | 2    |
| 평정자         | 1   | .013          | .9086 | 2    |
| 항목          | 7   | 213.105       | .0000 | 2    |

### 2) RO의 평정자간 신뢰도

타인의 반응(RO)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 자료 분석 결과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각각은 둘을 합친 전체 RO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표 2는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에 의해 산출된 전체 RO의 이원상호작용효과들에 대한 결과이다. RO에서도 평정자를 포함하는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참조). 즉 평정자간 신뢰도

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RO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평정자      | 19  | 4.833         | .9996 | 2    |
| 사례*항목       | 133 | 316.360       | .0000 | 2    |
| 평정자*항목      | 7   | 3.914         | .7896 | 2    |
| 사례          | 19  | 48.601        | .0000 | 2    |
| 평정자         | 1   | .537          | .4638 | 2    |
| 항목          | 7   | 98.565        | .0000 | 2    |

### 3) RS의 평정자간 신뢰도

자신의 반응(RS)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를 포함한다. 자료분석 결과,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역시 각각은 둘을 합친 전체 RS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3은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에 의해 산출된 전체 RS의 이원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이다. RS에서도 평정자를 포함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표 3 참조). 즉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RS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평정자      | 19  | 1.528         | 1.0000 | 2    |
| 사례*항목       | 133 | 287.647       | .0000  | 2    |
| 평정자*항목      | 7   | 4.502         | .7205  | 2    |
| 사례          | 19  | 99.268        | .0000  | 2    |
| 평정자         | 1   | .023          | .8788  | 2    |
| 항목          | 7   | 220.645       | .0000  | 2    |

## 부록 2. ICF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 1) 소망동기 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표 4는 선형로그분석으로 산출한 소망동기의 1-4단계 즉, 소망동기의 전반부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의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유의미하다. 이것은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소망동기 전반부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평정자      | 19  | 35.010        | .0139 | 2    |
| 사례*항목       | 437 | 395.009       | .9295 | 2    |
| 평정자*항목      | 23  | 22.124        | .5128 | 2    |
| 사례          | 19  | 37.322        | .0072 | 2    |
| 평정자         | 1   | 12.912        | .0003 | 2    |
| 항목          | 23  | 136.563       | .0000 | 2    |

### 2) 소망동기 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표 5는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으로 산출한 소망동기 5-8단계 즉, 소망동기의 후반부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이다. 사례와 평정자의 이원상호작용효과와 평정자와 항목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평정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표 5 참조). 이것은 평정자가 사례와 항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평정자간에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망동기 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표 5. 공포동기 후반부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평정자      | 19  | 27.729        | .0888  | 2    |
| 사례*항목       | 285 | 140.986       | 1.0000 | 2    |
| 평정자*항목      | 15  | 9.699         | .8382  | 2    |
| 사례          | 19  | 37.353        | .0072  | 2    |
| 평정자         | 1   | 4.232         | .0397  | 2    |
| 항목          | 15  | 125.800       | .0000  | 2    |

### 3) 공포동기 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표 6은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으로 산출한 공포동기 1-4단계 즉, 공포동기 전반부에 대한 결과이다. 공포동기 전반부에서 사례와 평정자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고, 평정자와 항목의 이원상호작용효과와 평정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6 참조). 이는 공포동기 상반부의 평정자간 신뢰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사례와 평정자의 주효과가 유의미한것은 평정자간 신뢰도를 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연구에서는 의미가 없다.

표 6. 공포동기 전반부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평정자      | 19  | 31.575        | .0349  | 2    |
| 사례*항목       | 437 | 246.436       | 1.0000 | 2    |
| 평정자*항목      | 23  | 30.046        | .1481  | 2    |
| 사례          | 19  | 46.817        | .0004  | 2    |
| 평정자         | 1   | .111          | .7389  | 2    |
| 항목          | 23  | 88.005        | .0000  | 2    |

### 4) 공포동기 후반부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표 7은 위계적 선형로그분석으로 산출한 공



포동기 5-8단계 즉, 공포동기 후반부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들이다. 평정자를 포함하는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표 7 참조). 이것은 평정자가 사례와 범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망동기 5-8단계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안정적인 임을 알 수 있다.

표 7. 공포동기 후반부에 대한 이원상호작용효과

| Effect Name | DF  | Partial Chisq | Prob   | Iter |
|-------------|-----|---------------|--------|------|
| 사례*평정자      | 19  | 12.353        | .8700  | 2    |
| 사례*항목       | 285 | 43.335        | 1.0000 | 2    |
| 평정자*항목      | 15  | 6.670         | .9662  | 2    |
| 사례          | 19  | 41.072        | .0024  | 2    |
| 평정자         | 1   | 1.096         | .2952  | 2    |
| 항목          | 15  | 50.859        | .0000  | 2    |